

피부질환에 사용된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고찰

방성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Literature Study on Fermented Korean Medicinals Used in Dermatology

Sung-hye Pahng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kinds of fermented Korean medicinals used to cure dermatological diseases in past Korea.

The method to do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books on the website,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databased and serviced by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ooks and related chapters were searched to find fermented medicinals.

The results wa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website search, eleven kinds of fermented medicinals could be found to cure scabies, leprosy, scrofuloderma, molluscum contagiosum and tinea capitis. The way how to ferment, the purpose of fermenting and regarding historical features could also be found.

Keywords : ferment, fermentation, fermented medicinal, dermatology

I. 서론

우리 민족은 일찍이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 막걸리와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어 섭취하여 왔다. 발효는 식품의 장기보관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의 목적 또한 함께 누리게 해준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발효란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말한다. 발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발효의 대상이 되는 유기물, 발효를 가능하게 하는 미생물,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 그리고 수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발효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효는 식품만을 대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한약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 한약은 물과 함께 탕전하여 여기서 추출된 약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한약을 마치 식품을 발효시키는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발효를 시키면 발효한약이 된다. 발효의 대상이 되는 한약, 배지, 물 그리고 발효를 진행시키는 미생물을 함께 섞어 적당한 조건을 맞추어 일정 기간 두면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약액이나 발효를 거친 한약이 바로 발효한약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도 발효한약은 치료의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고 이러한 발효한약에 관한 선행연구들¹⁾이 있다. 김에 의한 연구²⁾에서는 발효한약이란 한약재를 적당한 조건에서 발효시켜서 원래의 성과 효능이 효소 등 미생물에 의해 변화되어 증강되거나 새로운 효능이 생겨 임상

1) 김용미. 『발효한약의 연구동향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pp.57-61에서는 발효한약에 대한 연구로 발효 애엽, 발효 홍삼, 발효 울금, 발효 백지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2) 上揭論文. p.1

에서 변증론으로 다스릴 때 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발효한약의 장점에 대해 맛이 좋고 약효가 빠르고 흡수율이 높으며 효소가 생성된다는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필자는 한국 한의학의 문헌을 조사하던 중 피부질환에 사용된 발효한약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내용을 통해 과거 한의학에서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한약을 어떻게 발효시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발효한약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필자는 피부질환에 사용된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피부질환에 사용된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내용은 한국 한의학연구원이 전산화한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 (<http://jisik.kiom.re.kr>)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에 전산화된 문헌 중 한국인이 저술한 한의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에서 피부질환에 관한 치료법을 일일이 검색하여 이 중 발효한약에 관한 문헌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신국이나 반하국, 두시와 같은 약재는 발효한약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약재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친 것에 그 고유한 약재명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는 발효시키지 않고 사용되는 약재인데 특정 질병에 사용될 때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내용을 수집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 결과 羊蹄根, 葶麻子, 苦蔘·露蜂房·蝟皮, 艾葉, 茄子, 蠟, 白艾蒿, 驢頭, 玄蔘, 쇠명령출엽, 桑椹 등의 약재가 여러 피부질환에 발효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2. 문헌 내용 분석

1) 羊蹄根 발효

疥瘡를 치료하기 위해 양제근을 발효하여 사용하였다. 개창이란 옴 감염에 의해 심한 소양증과 구진이 생기는 피부질환이다.

양제근을 찢어서 술을 빚는데 따뜻한 방에 3-4일간 둔다. 개창 부위를 문질러 딱지를 없앤 후 약을 발라주고 불을 가까이 하여 약을 말린 후 비벼서 약을 없애고 다시 또 바르면 신효하다. (羊蹄根, 爛擣, 釀酒, 置溫房中, 過三四日後, 搔其瘡, 去其痂, 而塗之, 就火還炙, 令乾後, 旋擦去而又塗之, 神效.)³⁾

이는 『의림촬요』⁴⁾, 『전원필고』⁵⁾, 『주촌신방』, 『구급단방』⁶⁾, 『의방합편』⁷⁾, 『인제지』⁸⁾, 『의회』⁹⁾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내용 중 釀酒라고 한 것은 전통적인 술 빚는 법을 따르라는 뜻으로, 항아리에 약재와 물, 곡물 그리고 누룩을 담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누룩곰팡이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어 술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양제근을 찢어서 물과 곡물 그리고 누룩을 함께 넣어서 발효를 시키라는 뜻이다.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釀酒라고 간단히 기술하였다.

2) 葶麻子 발효

개창을 치료하기 위해 비마자를 발효하여 사용하였다.

비마자 한주먹을 년수에 따라 등분하여 누룩 한주먹과 함께 잘 섞어 찢은 후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막아 따뜻한 곳에 2-3일간 둔다. 즙을 꺼내어 5-6회 바른다. (葶麻子一握, 隨年等分, 麴子一握, 調和爛擣, 入缸封口, 置溫處, 二三日, 取汁塗之, 五六次.)¹⁰⁾

3) 申曼. 『舟村新方』. 卷之三. 大人編, 腫瘡門

4)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十. 疥瘡

5) 李碩幹. 『田園必考』. 瘡腫部

6) 『救急單方』. 疥瘡

7) 『醫方合編』. 皮風, 經驗, 疥瘡

8) 徐有渠. 『仁濟志』. 卷第二十一. 外科, 疥癬, 傳搽

9) 錦里散人. 『宜彙』. 卷之三. 癬疽

10) 錦里散人. 上揭書. 卷之三. 癬疽

이렇게 비마자를 발효시켜 개창에 사용한 것은 『의취』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비마자를 개창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발효과정을 거처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3) 苦蔘·露蜂房·蝟皮 발효

大風瘡을 치료하기 위해 고삼, 노봉방, 위피를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대풍창이란 나균의 감염에 의한 나병, 즉 문둥병을 말한다.

고삼양주는 온 몸에 흰 인설이 생기고 가려우면 통증을 느끼며 변하여 대풍창이 되려고 하는 것을 치료한다. 고삼 5근, 노봉방 5량, 위피 1개, 누룩 2근을 가늘게 자른 후 물 5되를 붓고 4일간 담귀 둔 후 쌀 5되를 밥을 지어 약과 누룩과 함께 섞어 술 빚는 방법을 따라 술을 빚는다. 익으면 매번 따뜻하게 1잔을 하루 3번 마신다. (苦蔘釀酒, 治遍身白屑, 搔之則痛, 變作大風癩, 苦蔘五斤, 露蜂房五兩, 蝟皮一枚, 麴二斤, 右細剉, 以水五斗, 合藥浸四日, 炊米五斗, 并藥麴同釀酒, 如常法, 熟即每煖飲一中盞, 日三服.)¹¹⁾

이 내용은 『향약집성방』, 『의방유취』¹²⁾, 『광제비급』¹³⁾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삼양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약재와 누룩, 물, 밥을 함께 넣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艾葉 발효

대풍창을 치료하기 위해 애엽을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나병을 치료하는데 말린 애엽을 양에 따라 누룩에 담근 후 보통의 술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마셨을 때 마비감을 느끼면 병이 낫는다. (治癩, 乾艾, 隨多少, 以浸麴, 釀酒如常法, 飲之覺痺即差.)¹⁴⁾

이는 『향약집성방』, 『의방유취』¹⁵⁾, 『의방합편』¹⁶⁾,

『인제지』¹⁷⁾, 『부방편람』¹⁸⁾, 『양무신편』¹⁹⁾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5) 茄子 발효

대풍창을 치료하기 위해 茄자를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대풍창 및 담을 치료한다. 황색의 늙은 가자를 크기가 큰 것으로 하여 양은 상관없이 새 항아리에 채워 넣고 땅 속에 묻어둔다. 1년이 지나면 약이 모두 액체로 바뀌는데 꺼내어 고삼가루를 함께 넣고 오자대 크기로 환을 만든다. 식후 및 취침 시에 술과 함께 30알을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大風熱瘡及痰, 用黃老茄子大者, 不計多少, 以新瓶盛之, 埋土中, 經一年, 盡化為水, 取出, 入苦蔘末同丸, 梧子大, 食已及臥時, 酒下三十丸, 甚效.)²⁰⁾

이는 『향약집성방』²¹⁾, 『의방유취』²²⁾, 『양무신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앞서의 방식과는 다른 발효방식임을 알 수 있다. 가자를 생으로 채취하여 그대로 항아리에 담고 땅에 1년동안 묻어두는 방식으로, 누룩이나 물 혹은 곡류를 추가하지 않고 채취한 생재료 그대로를 장기간 항아리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효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 蠍 발효

역시 대풍창을 치료하기 위해 뱀을 발효시켜 사용하였는데, 이 때 사용되는 뱀은 白花蛇, 烏蛇, 大蟒, 蝮蛇이다. 이 중 백화사를 발효시키는 예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백화사주는 대풍창을 치료한다. 백화사 1마리, 고두밥 1되를 준비하는데 항아리 바닥에 먼저 누룩을 담고 그 다음에 백화사를 자루에 담아서 누룩 위에 올린 후 누룩과 밥을 잘 섞어서 뱀 위에 올리고 항아리 입구를 종이로 잘 막는다. 삼칠일을 두었다가 항아리를 열어 술을 꺼내고 뱀은 꺾질과 뼈를 버리고 가루낸다. 매번 술 한잔을 따뜻

11) 俞孝通 外. 『鄉藥集成方』. 卷第三. 風門, 大風癩
12) 韓繼喜 外. 『醫方類聚』. 卷之十八. 諸風門, 聖惠方, 治大風癩 諸方
13) 李景華. 『廣濟秘笈』. 卷之一. 癩疽
14) 俞孝通 外. 上揭書. 卷第三. 風門, 大風癩
15) 韓繼喜 外. 上揭書. 卷之十九. 諸風門, 大全本草
16) 『醫方合編』. 瘡腫門. 三意, 癩疾

17) 徐有渠. 上揭書. 卷第二十一. 外科, 烏白癩, 湯液
18) 黃度淵. 『附方便覽』. 卷之十. 皮 主治風癩疹癬
19) 南載喆. 『兩無神編』. 卷之中. 外科, 疹洩斑癩門
20) 南載喆. 上揭書. 卷之上. 通治部, 諸風門
21) 俞孝通 外. 上揭書. 卷第三. 風門, 大風癩
22) 韓繼喜 外. 上揭書. 卷之十九. 諸風門, 大全本草

하게 데워 뱀 가루낸 것 약간과 함께 복용한다. 술지게미는 떡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 (白花蛇造酒方, 治大風, 每白花蛇一條, 蒸米一斗, 缸底先用酒麴, 次將蛇用絹袋盛之, 頓放麴上, 然後酒麴, 以蒸飯, 和勻, 頓於蛇上, 用紙封缸口, 候三七日, 開缸取酒, 將蛇去皮骨爲末, 每服酒一盞, 溫服蛇末少許, 仍將酒脚并糟做餅, 食之尤佳.)²³⁾

이는 『의방유취』, 『의림촬요』²⁴⁾, 『동의보감』²⁵⁾, 『양방금단』²⁶⁾, 『인제지』²⁷⁾, 『부방편람』²⁸⁾, 『의휘』²⁹⁾, 『의감중마』³⁰⁾, 『동서의학요의』³¹⁾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7) 白艾蒿 발효

대풍창을 치료하기 위해 백애호를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고방에 백호를 라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하였다. 심사방에서 말하기를 백애호를 열 묶음을 취하여 1승 정도를 끓여 액을 취한 후 누룩과 쌀을 함께 넣고 술을 빚는 방법대로 하여 익으면 조금씩 마신다. (古方白蒿治癩疾多用之, 深師方云, 取白艾蒿十束, 如升大, 煮取汁, 以麴及米一如釀酒法, 候熟, 稍稍飲之.)³²⁾

이는 『의방유취』, 『의방합편』³³⁾, 『인제지』³⁴⁾, 『부방편람』³⁵⁾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다.

8) 驢頭 발효

대풍창을 치료하기 위해 나귀의 머리를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나귀의 머리를 삶아 털을 없앤 후 끓여 즙을 취하여 누룩을 담귀서 술을 빚으면 대풍창을 없애준다. (驢頭燻去毛, 煮汁, 以漬麴醞酒, 去大風.)³⁶⁾

이는 『의방유취』에만 기록되어 있다.

9) 玄蔘 발효

癩癧를 치료하기 위해 현삼을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나력이란 결핵균의 감염이 경부의 임파절로 전파되어 피부에 누공을 형성하는 피부질환으로, 지금의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에 해당한다.

나력에 뒷목에 핵이 있고 또 한열왕래가 있으면 현삼 1근을 진하게 달이고 찹쌀이나 멥쌀 1되를 현삼 달인 물로 밥을 짓고 여기에 누룩 가루 1되를 넣어 술을 주조하되 익기를 기다려 소주를 만들어 복용하면 핵이 저절로 없어진다. (癩癧, 項核, 又有寒熱, 玄蔘一斤, 濃煎, 粘米或粳米一斗, 以玄蔘煎水炊飯入, 麴子末一斗, 造酒待熟, 作燒酒服, 結核自消.)³⁷⁾

현삼을 발효시켜 나력에 사용한 것은 『의휘』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른 문헌에서도 나력에 현삼을 사용하였지만 발효시켜 사용하지는 않았다.

10) 쇠명넝출엽 발효

쇠명넝출엽을 발효시켜 물사마귀에 사용하였다. 물사마귀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여러 개의 수포가 연속적으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전염성 연속종을 말한다.

울타리가 뻗어 있는 곳에 있는 쇠명넝출의 잎을 진하게 달여 그 약액과 누룩가루 약간을 합치고 밥 약간을 넣어 하룻밤동안 술을 빚는다. 그 물을 자주 발라주면 3-4일 후에 저절로 없어진다. (籬之所絡, 쇠명넝출葉, 多煎之, 其水和曲末小許, 飯小許, 釀之, 經一宿, 其水頻塗之, 三四日自消.)³⁸⁾

23) 韓繼喜 외. 上揭書. 卷之二十三. 諸風門, 瑞竹堂方, 諸風
24) 楊禮壽. 上揭書. 卷之十. 癩風門
25)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諸瘡
26) 『良方金丹』. 諸瘡部
27) 徐有渠. 上揭書. 卷第二十一. 外科, 癩風, 湯液
28) 黃度淵. 上揭書. 卷之十. 皮 主治風瘙疹癩
29) 錦里散人. 上揭書. 卷之三. 癩疽
30) 李圭峻. 『醫鑑重磨』. 百病總括篇下. 雜病
31) 都鎮羽. 『東西醫學要義』. 第四編雜病. 第十五章 外科, (東)大風瘡 (西)癩病
32) 韓繼喜 외. 上揭書. 卷之十九. 諸風門, 大全本草
33) 『醫方合編』. 瘡腫門. 三意, 癩疾
34) 徐有渠. 上揭書. 卷第十六. 外科, 癩疽總方, 湯液
35) 黃度淵. 上揭書. 卷之二十一. 諸瘡 下

36) 韓繼喜 외. 上揭書. 卷之十九. 諸風門, 大全本草
37) 錦里散人. 上揭書. 卷之三. 癩疽, 癩癧
38) 劉以泰. 『實驗單方』. 八十二. 贅肉(무사마귀)

이는 『실험단방』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贅肉 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편명의 제목 옆에 한글로 병명을 ‘무사마귀’라고 병기하였기에 물사마귀 치료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桑椹 발효

禿瘡의 치료에 상심을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독창이란 진균의 감염에 의한 두부백선을 말하는데, 두피에 각질이 생기고 탈모증상이 나타난다.

적독창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치료한다. 상심 1되를 사기항아리 안에 넣고 잘 밀봉하여 북녘 처마 아래에 묻어 두기를 백일이 지나면 변하여 액체가 된다. 매번 사용할 때 환부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발라주면 머리카락이 곧 생긴다. (治赤禿髮落, 桑椹一斗, 內瓷瓶中, 密封於北簷下, 埋之一百日, 卽變爲水, 每用先淨洗頭, 次塗之, 髮卽生.)³⁹⁾

이는 『향약집성방』과 『의림촬요』⁴⁰⁾에 공통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독창으로 인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가자를 발효시킨 방법처럼 누룩과 곡류를 추가하지 않고 채취한 상심 그대로 항아리에 넣고 백일간 땅에 묻어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III. 고찰

발효한약이라 함은 약재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는 한약을 말한다. 발효한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양조 과정을 따르는 것인데, 약재, 누룩, 곡물, 물을 항아리에 담고 따뜻한 곳에 일정기간 두어 누룩곰팡이에 의해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다. 양제근, 비마자, 고삼, 애엽, 뱀을 발효시킨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역시 전통적인 양조 과정을 따르는 것인데 약재를 끓인 즙과 누룩, 곡물을 함께 섞어 항아리에서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다. 백애호,

여두, 현삼, 쇠명령출엽을 발효시킨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채취한 신선한 약재를 항아리에 그대로 담아 장기간 땅 속에 묻어 발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가자와 상심을 발효시킨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발효에 필요한 누룩을 인위적으로 추가하지 않고 약재가 가진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발효균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지도 않았기에 앞의 방법들과는 달리 백일 혹은 1년이라는 장기간의 발효시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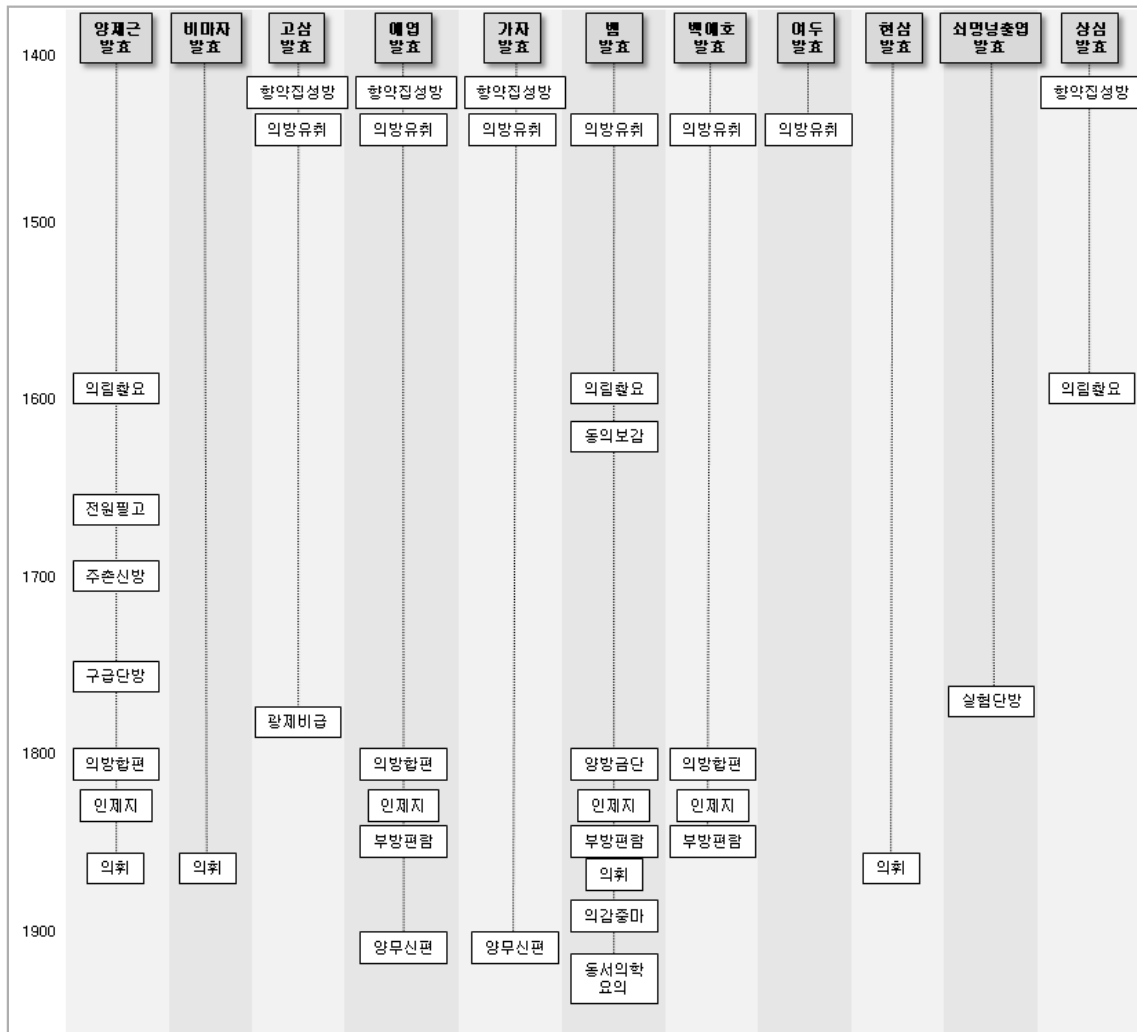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왜 굳이 번거롭게 발효를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발효를 시킨 이유로 첫째는 발효과정을 통해 추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피와 같은 약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피는 재질이 딱딱하여 탕전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히 유효성분을 추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를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를 시킴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유효성분을 더욱 많이 추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약재가 원래 가진 약효를 배가시켜 줄 수 있었다. 애엽이나 고삼을 발효시킨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애엽이나 고삼은 굳이 발효하지 않더라도 탕전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효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풍창이라는 난치병에 애엽이나 고삼을 발효시켜 사용함으로써 발효에 참여한 미생물의 힘을 실어서 살균능력을 배가시킨 것이다. 셋째, 유독한 약재를 무독화시킬 수 있었다. 복사나 백화사를 발효시킨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복사와 백화사는 독이 있는 뱀인데,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복용이 가능한 정도로 무독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발효한약이 사용된 질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효한약이 사용된 개창, 대풍창, 나력, 물사마귀, 독창은 모두 세균이나 진균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피부질환이다. 감염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피부질환보다 감염에 의해 발생한 피부질환에 발효한약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발효에 참여하는 미생물이 감염균을 퇴치하는 데에 함께 작용하여 한약의 치료능력을 배가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한약에서 추출한 유효성분만을 약용한 것이 아니라 발효에 참여한 미생물까지 함께 약용한 것으로, 이는 미생물을 치료에 활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치료법의 전승관계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각 발효한약의 종류와 언급된 문헌을 시대순으로 배열해 보면 <Fig. 1>과 같다.

39) 俞孝通 외. 上揭書. 卷第四十六. 癰疽 瘡瘍門, 頭赤禿

40) 楊禮壽. 上揭書. 卷之六. 頭痛門



〈Fig. 1〉 발효한약의 종류 및 각 기록된 문헌의 시대순 배열

상기 그림에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발효한약은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서 먼저 그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후기의 문헌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뱀 발효처럼 조선 초기-중기-후기에 걸쳐 고루 언급된 경우도 있지만, 고삼, 애엽, 가자, 백애호의 경우처럼 조선 초기에 언급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야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마자나 현삼, 쇠명녕출엽의 경우처럼 하나의 문헌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두나 상심의 경우처럼 조선 초기나 중기에만 잠시 등장했다가 이후 후기에 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조선 후기에 가서 발효한약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은 그만큼 그 사용이 빈번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 때는 경험의학과에 속하는 문헌들이 쏟아졌던

시기이다. 경험의학과는 화려한 의론은 배제하고 질병과 치료법 위주의 요점을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파이다. 그렇다면 조선 중기에는 미처 의서에 기록 되지 못하고 경험으로 전해지던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경험의학과에 다수 문헌에 채집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 그림에서 경험의학과에 속하는 문헌으로는 『전원필고』, 『주춘신방』, 『의방합편』, 『의취』, 『부방편람』, 『양무신편』, 『양방금단』, 『실혈단방』이 있다.⁴¹⁾

또한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문헌이 있다. 바로 비마자와 현삼을 발효시킨 내용을 기록한 『의취』라는 서적이다. 비마자와 현삼을 각각 개창과 나력의 치료를 위해 발효를 시킨 것은 『의취』에만 등장하는 내용이다. 비마자와 현삼은 개창과 나력의 치료를 위해 이미 전부터

41)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관한 試論」. 한국사학회지. 2004;17(2);pp.13-15.

사용되어왔던 약재이다. 그런데 발효되어 사용된 것은 『의취』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그리고 『의취』에는 개창의 치료를 위해 양제근을 발효시키고 대풍창의 치료를 위해 뱀을 발효시킨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의취』의 저자는 전부터 전해오던 양제근과 뱀을 발효시키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하여 다른 질병의 치료에도 약재를 발효시키는 방법을 새로이 개척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조선 후기 경험의학과와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효한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의학과 미생물학 그리고 식품학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것이다. 발효한약은 한약의 추출성분만을 약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 참여하는 미생물도 함께 약용하는 것으로 지금의 미생물학과 연계된 것이다. 그리고 발효한약의 조제과정이 양조 과정과 유사하여 지금의 식품학과도 일부 궤도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효한약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당대의 여러 실용적인 기술이 동시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한국 한의학 문헌에 수록된 피부질환의 치료법 중에서 발효한약이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개창, 대풍창, 나력, 물사마귀, 독창을 치료하기 위해 양제근, 비마자, 고삼, 애엽, 가자, 뱀, 백애호, 여두, 현삼, 쇠명농출엽, 상심을 발효시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효시키는 방법은 약재와 누룩, 곡물, 물을 함께 섞거나 혹은 약재를 끓인 즙과 누룩, 곡물을 함께 섞어 항아리에 넣고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킨 방법이 있었고 또한 채취한 신선한 약재를 항아리에 담고 장기간 땅속에서 보관하여 발효를 시킨 방법이 있었다.

발효한약은 추출율을 높이거나 약효를 배가시키거나 유독한 약재를 무독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효한약은 주로 감염성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발효한약을 사용함으로써 한약의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발효에 참여하는 미생물도 함께 치료의 목적으로 약용하였다.

발효한약이 기록된 문헌들의 시대적 전승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조선초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발효한약은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후기 경험의학과에 속하는 문헌에 다수 채집되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험의학과에 속하는 문헌인 『의취』에서는 개창과 나력을 치료하기 위해 비마자와 현삼의 발효를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보여 저자의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피부질환에 국한하여 발효한약에 관해 살펴 보았다. 하지만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종류의 질병에도 발효한약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관한 더욱 풍성한 문헌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金容嫻. 『발효한약의 연구동향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申曼 『舟林新方』.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3. 楊禮壽 『醫林撮要』.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4. 李碩幹 『田園必考』.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5. 『救急單方』.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6. 『醫方合編』.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7. 徐有渠 『仁濟志』.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8. 鎭里散人 『宜彙』.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9.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0. 韓繼喜 외. 『醫方類聚』.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1. 李景華. 『廣濟秘笈』.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2. 黃度淵. 『附方便覽』.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3. 南載喆. 『兩無神編』.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4. 許浚. 『東醫寶鑑』.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5. 『良方金丹』.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6. 李圭峻. 『醫鑑重磨』.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7. 都鎭羽. 『東西醫學要義』.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8. 劉以泰. 『實驗單方』.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011/05/01)
19.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관한 試論」. 한국의사학회지. 2004;17(2).